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선교사 선교 소식 86호

러브 코소보
복된 성탄과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오랜 만에 아김을 길에서 만났다.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지만, 그의 안색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사정을 들어보니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다고 했다. 아김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 주말마다 등산을 하느라, 신앙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권면을 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에 그의 문제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침 아김과의 만남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인근에 사는 의료 선교사가 방문한다고 해서 만남을 주선했다. 전문의로부터 그 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치료도 받아서인지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치료 후에 다시 신앙 생활을 하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한다.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

평안하신지요? 어느덧 올해도 몇일을 남겨 놓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역자님과의 동역으로 지난 시간을 잘 극복했다는 생각에 감사의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해 동안 함께 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올 해 마지막 소식을 드립니다.

한태진 선교사님의 소천

함께 코소보에서 20여년을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암으로 한국에서 거의 2년을 투병하시다가 결국 다시 오고 싶어하시던 코소보 대신 더 좋은 천국에 먼저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99년부터 시작된 코소보 한인 선교 역사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소천하신 첫 선교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코소보 한인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유족과 인터넷 상으로 대화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태진 선교사님이 코소보에 오던 날부터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의 추모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 분이 코소보 선교를 위해 치루었던 많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 귀한 가치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다 이루지 못한 사역을 남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선교사가 몇 가정 안되는 이곳의 열악한 선교 상황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준비된 선교사들이 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뜨닉의 변화

그 동안 기도 부탁드렸던 에뜨닉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는 물론 거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임 때마다 좋은 질문을 하여서 다른 신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에뜨닉 덕분에 교회에서 또래인 에그존과 함께 어울리고, 멀김도 옆에 앉아 성경을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에뜨닉의 영혼 구원과 그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교제가 활발해지고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 생활에 부진한 형제 자매들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싸밀은 오랫동안 알콜 중독이었던 사람인데 함께 사는 어머니가 거동을 잘 못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어 교회에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도 어려워 거의 말씀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벨키제는 여성 신자가 드문 이곳에서 여성으로 정말 오래도록 우리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라마단 금식 기도를 매 해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순을 보게 되어 예수님만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말 가족 청산

저희 가족이 주말 가족을 청산하고 다시 함께 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일이의 학교 문제로 아내가 수도에서 지냈는데, 다시 쟈코바로 돌아왔고 새일이는 매일 쟈코바에서 통학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쟈코바로 왔다가 주말 내내 식사 준비와 사역으로 쉬지 못한 채 다시 수도로 가야했던 아내, 그리고 저 또한 자주 수도를 다녀와야 하는 일로 체력적으로 무리가 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새일이가 매일 왕복 4시간 가량을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새 학교가 좋아서 그런지 기쁨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과 중간에 다시 차를 갈아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왕복 4시간의 이동 가운데 체력적으로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로 아이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1월에는 새일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저희가 긴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기도부탁을 드리면서 격리에 들어 갔는데, 다행히 이틀 정도 열만 있었지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결국 모든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아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지는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잠깐이나마 코소보로 와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어로 성경 학교 수업을 따라 가느라 고생을 한 은지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유익하고, 잘 충전되어 다시 독일로 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료 받는 아김

동역자님
올 해는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아 암울한 연말과 새해를 보낼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초월하여 살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올 해 마지막 소식을 여기서 줄입니다.

2021년 12월 성탄절에
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드림

코소보를 위한 기도 제목

겨울이 되면서 전기 사정이 나빠지고 있어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코소보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마저도 담요로 추위를 극복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화력 발전소가 수리되지 못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전기 상황이 개선되고 이곳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 이선교사의 허리통증과 위기능 약화가 치료되고 장선교사의 왼쪽 어깨 통증이 치료되도록
- 은지가 성경학교기간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 중 2인 새일이가 매일의 통학시간을 잘 감당하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여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 주일학교가 활성화 되도록
- 에뜨닉과 에그존, 발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 장선교사의 어머님 (김덕례 권사 89세)의 잇몸 속에서 갑자기 염증을 일으킨 사랑니 발치 수술을 1월 말경에 할 예정이어서 본인과 모든 자녀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치료가 잘 되어지도록

연락처

smleekosova@yahoo.com
070-8246-1434,
00238344334420(코소보)
카톡: samlee1016
GMP: 02-337-7191